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국인을 올 여름 외식 등 지출 줄인다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10년 만의 최고치에서 하락
- Bloomberg: 미 신규 주택, 2020년 이래 가장 적게 착공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올해 손실 회복세 보인다

[미 대선]

- Bloomberg: CFO의 1/3, “미 대선이 투자 결정에 영향 준다”
- Bloomberg: 미 정보국, “중국 정부 어떤 미 대선 후보자도 선호하지 않아”

[미국 생활]

- WSJ: 올여름 미국인 난방비 올라간다

[인공지능]

- CNN Business: 미국 기업의 46%, 1년 내 AI로 업무 자동화 계획
- Bloomberg: Dell과 Super Micro, 일론 머스크의 xAI위한 ‘AI 공장’ 구축

[에너지]

- WSJ: 태양광 패널 설치 전망 어두워
- Bloomberg: 미 원유, 상승세... 81달러 돌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맥도날드의 ‘5달러 세트’ 출시에 업계 가격 전쟁 돌입
- WSJ: 기업들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 축소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Americans could be on a tight budget this summer 미국인을 올여름 외식 등 지출 줄인다

- 이번 주 발표된 2024년 KPMG의 Consumer Pulse Survey에 따르면 미 소비자들이 올여름에 외식이나 휴가 등에 소비를 줄일 계획이다.
- 올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매월 외식을 평균 9% 줄일 계획이며 오락 등은 8%, 여행과 휴가는 7% 줄일 계획이다.
- 필수품이 아닌 재량적인 지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도 작년의 32%에서

21%로 줄었다.

- 이번 조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할인 용품을 찾고 심지어 필수품까지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기업들은 제품 인상 뿐만 아니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사이즈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Lingered Near 10-Month High Last Week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 10년 만의 최고치에서 하락

- 휴일과 학교 방학 등으로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10개월 만의 가장 큰 폭 상승에서 하락했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 6월 15일 끝나는 주의 실업청구건은 그 전주 10년 만의 최고치에서 회복되어 5천건 줄어든 23만8천건으로 집계됐다.
-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청구건수는 6월 8일 현재 1백82만건으로 7주 연속 높은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ew US Home Construction Plunges to Slowest Pace Since June 2020

미 신규 주택, 2020년 이래 가장 적게 착공

- 연준의 고금리 정책 유지로 주택 시장의 모멘텀이 올해 초부터 약해지는 가운데 신규 주택 착공이 4년 만에 가장 적게 이뤄지고 있다.
-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5.5% 줄어든 연율 1백28만채로 나타났다.
- 향후 착공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주택 허용은 연율로 3.8% 하락한 1백39만채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6월 이래 가장 약한 상황이었다.
- 이같은 착공과 신규 허가 하락은 다가구와 단독주택 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Are a Whisker Away From Erasing This Year's Loss

미 국채 올해 손실 회복세 보인다

- 미 국채가 올해 상반기에 롤러코스터 상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손익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 올해 3.4%의 수익률 대부분을 4월에 잃어버린 후 이번 주까지의 블룸버그 미국 수익률 지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지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4월의 저점에서 채권시장이 회복하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 둔화 때문에 연준이 연준관리들의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데 투자자들이 배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낮아지는 기대감 때문이다.
- 시드니의 GSFM 투자 전략가인 Stephen Miller는 국채 금리가 정점에 있다며 채권이 회복세에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Bloomberg: A Third of CFOs See US Elections Impacting Investment Decisions, Survey Finds

CFO의 1/3, “미 대선이 투자 결정에 영향 준다”

- 향후 12개월간 CFO들에게 금융 정책과 인플레이, 노동 시장이 걱정거리인 가운데 이들 중 1/3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지체하거나 줄이거나 영구히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 지난 대선이 2016년 때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CFO의 반가량이 답했으나 이번에 그 같은 수치는 28%로 줄었다.
- 그리고 응답자의 32%는 올해 선거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Duke's Fuqua School of Business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 Has No Favorite in Biden-Trump Race, US Intelligence Finds

미 정보국, “중국 정부 어떤 미 대선 후보자도 선호하지 않아”

-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지도자들은 오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 않으며 특히 두 후보자 가운데 선호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미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자들은 양국 간 고위 관리들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수년간 양국은 기술, 인권, 남중국해 이슈 등 여러 문제에 충돌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It's Going to Cost More to Stay Cool This Summer

올여름 미국인 난방비 올라간다

- 올여름 미국인 난방비가 기록적인 온도와 가격이 상승하는 천연가스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연방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미국인 가구의 매월 전기 비용이 6월 7월 8월 각각 1백73불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여름보다 3% 상승한 것이다.
- 특히 올여름 동부를 비롯한 남서부와 북서지역은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인공지능]

CNN Business: AI is replacing human tasks faster than you think

미국 기업의 46%, 1년 내 AI로 업무 자동화 계획

-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에 직원이 하던 업무를 자동화 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 목요일 발표된 재무 책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의 거의 절반(46%)이 향후 1년 이내에 AI를 사용해 기존에 직원이 하던 업무를 자동화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듀크 대학교와 애틀랜타 연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화하려는 업무에는 공급 업체에 비용 지불, 송장 처리, 재무 보고뿐만 아니라 채용 공고 작성, 보도 자료 작성, 마케팅 캠페인 구축 등 창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비용 절감, 수익 증대, 그리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AI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Dell, Super Micro Shares Jump on Reports of 'AI Factory' for Elon Musk's xAI

Dell과 Super Micro, 일론 머스크의 xAI위한 'AI 공장' 구축

- Dell의 CEO인 Michael Dell이 일론 머스크의 xAI를 위한 'Dell AI 공장'을 엔비디아와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개장 전 거래에서 Dell의 주가가 상승했다.
- Michael Dell은 수요일 X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xAI 를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Dell AI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Super Micro Computer Inc.도 서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Super Micro Computer Inc.의 X 계정은 축하 이모티콘과 웹사이트 링크로 머스크에게 답장을 보냈다.
- Dell과 Super Micro는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늘리기 위해 서버 용량을 늘리고 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Solar Energy Faces Cloudy Prospects on Warehouse Rooftops

태양광 패널 설치 전망 어두워

- 최근 부동산 회사들이 창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배기가스를 줄이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런데 많은 부동산 경영진이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쇼핑몰, 창고 건물, 유통 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창고 운영자들은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 한 예로,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그리스 부동산 파트너스의 매니징 파트너인 Matt Schlindwein은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무거운 패널로

인해 건물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건물주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Oil Holds Above \$85 as Traders Await Fresh US Stockpile Data

미 원유, 상승세... 81달러 돌파

- 미국 원유 재고 주간 데이터 발표에 트레이더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가는 증시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 미 원유 비축분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유가 오르고 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미국의 준틴스 연방 공휴일로 인해 거래량이 적었던 어제 이후 배럴당 8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었다. 미 원유 비축량도 2백55만 배럴 감소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숏 베팅에서 롱 베팅으로 전환하면서, 원유 가격은 최근의 저점에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비축유가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목요일에는 WTI 7월물 계약도 만기가 되어 장중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McDonald's \$5 Value Meal Intensifies a Fast Food Price War 맥도날드의 '5달러 세트' 출시에 업계 가격 전쟁 돌입

- 맥도날드는 6월 25일에 새로운 5달러 식사 세트를 출시하여 인플레이션에 지친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 블룸버그 뉴스가 맥도날드의 계획을 보도한 이후, 경쟁업체인 버거킹과 웬디스, 심지어 스타벅스도 할인 행사를 발표하며 대응하고 있다. 버거킹은 맥도날드보다 먼저 5달러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며 웬디스는 3달러 아침 식사 할인 행사를, 스타벅스는 6달러 아침 식사 세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 경쟁 업체들은 맥도날드와의 가격 경쟁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레스토랑 브랜드 International Inc.의 회장 Patrick Doyle은 이러한 가격 중심의 전략이 전체 레스토랑 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WSJ: Companies Are Watering Down Their Diversity Recruiting Programs 기업들 '다양성 채용 프로그램' 축소한다

- 한때 다양한 인재 채용을 위해 소수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화이트칼라 기업들이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고 있다.
-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와 JP모건 체이스는 최근 소수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우대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어난 변화이다.
- 2021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이니셔티브는 정점을 찍었으나, Glassdoor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후 몇 년 동안 다양성 프로그램의 접근성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DEI'와 같은 용어 사용을 줄이고, 특정 소수계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등 조용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소수계 학생들은 이미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미 증시 고평가지만...거품 붕괴 확률 18% 수준"

스태이트스트리트 '거품 전망' 결과..."고평가 해소 방식은 여럿"

최근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일각에서 거품 우려가 나오지만, 조만간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은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업체 스타이트스트리트어소시에이츠가 로빈 그린우드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거품 전망'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40% 하락할 붕괴 확률은 18% 수준이라고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해당 수치의 5년간 후행 평균인 26%보다 8%포인트 정도 낮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